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4,883원 인상!
임금 안정성 쟁취!
공민권 행사 보장!

제04호 / '17.5.11(목)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공공기관 출석할 권리 보장하라!

공민권 행사 관련 질의응답 이어져

공민권 관련 요구안 질의응답

11일(목) 14시 보취에서 지부 5차 교섭이 열렸다. 지난 교섭에 이어 지부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한차례 더 이어졌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지난 교섭에서 임금인상안과 임금안정성 요구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이번 교섭에서는 공민권 보장 요구안에 대해 질문했다. 공공기관 출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장할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공공기관 출두는 보장되어야 할 권리

사실 각 지회별 단체협약에 이미 많은 부분이 보장되어 있다. 예비군을 비롯한 병역의무 관련한 내용은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법원 출석, 투표시간 인정도 많은 사업장 단협에 담겨있다. 다만, 국회, 검찰, 노동위원회 등의 공공기관 출석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들이 있다. 지부는 공공기관 출석과 더불어 천재지변이나 교통 차단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울 경우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예비군 및 민방위

등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단협 상으로는 공공기관 출석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 특히,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노동위원회, 국회 등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조합원들이 공공기관에 출두하는 것은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 업무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작년 합의사항부터 이행하라!

한편, 이 날 교섭에서 지부 박윤종 사무국장은 작년에 합의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작년 별도 요구안이 어렵게 합의됐는데, 정작 보취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노사간 신뢰도 유지되기 어렵다. 어차피 이행하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어렵게 시간내서 교섭하고 합의안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보취 사측 교섭위원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이미 시간은 충분히 많이 지났다. 보취가 작년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올해 지부교섭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5차 교섭 속기록

보쉬, 작년 합의사항 지켜라!

노 : 지난 교섭에 이어 공민권 행사 관련해서 질의받겠다.

사 : 공민권 행사는 공적인 것만 말하는 거죠?

노 : 병역의무 관련한 것은 거의 보장되어 궁금할 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있는 국회, 법원, 노동위,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에 출두할 경우의 내용이 중심이다.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진 않을 것 같다. 조합활동을 많이 하다가 생길 수는 있겠다. 피고인이나 원고 신분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할 때, 회사 업무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것이다. 회사 측이 얘기하는 사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사 : 개인적인 송사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다. 개인적인 서류 발급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노 : 요구안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인가? 국회나 노동위, 법원, 검찰 등을 말한 것이다. 구체적인 공공기관 범위는 교섭하면서 이야기해보자.

사 : 천재지변, 교통차단은 공민권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노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애초에 이 조항을 만들게 된 취지는 각 사별로 단협상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는 것이다.. 예비군 관련 조항 따로, 수사기관 출두 따로 되어 있어서 한 조항으로 정리하자는 의미도 포함돼있다.

질문 더 없으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

별도요구안이라고 작년에 별도합의서로 남긴 것이 있다. 지부는 작년에 노사 신뢰에 의해서 내용적으로는 조율이 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다만,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건 우려가 크다. 어려운 시간 쪼개서 이렇게 교섭을 하고 있는데 어렵게 합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조합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기존 합의된 사항은 지켜져야 교섭 자리도 유지되고 원만한 합의도 되지않을까 한다. 별도요구안 관련해서 지금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이 보쉬이다. 보쉬 입장을 듣고 싶다.

사 : 당사에서 이행하지 않아 지부의 어려움을 야기한 것 죄송하다. 지회와도 많은 토론하고 있는 과정이다. 조금 더 내부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줬으면 한다.

노 : 별도로 안 준비한 것 있나?

사 : 오늘은 질의만 진행하려고 했다.

노 : 질의응답 내용 없으면 차기교섭 얘기하고 마무리하자.

사회 : 차기교섭은 5/25(목) 15시에 7차 교섭을 KDK에서 진행하겠다.